"전국보다 빠른 속도로 코로나 재유행"

제주 최근 일주일 확진자 하루 평균 1200명대
도, 국가지정 전담병상 확대 등 추가 대책 추진

전국적으로 8월 중 코로나19 재유행이 정점에 다다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역 재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하루 동안 제주지역에서는 160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데 이어, 이날 오후 5시까지 994명이 추가로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25만4360명으로 늘었다.

20일 기준으로 최근 일주일간 제주지역에서는 총 847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이는 전주 대비 4501명이 증가한 수치이며 하루 평균 1200명에 이르고 있다.

날짜별로 보면 14일 878명, 15일 967명, 16일 1033명, 17일 832명, 18일 1221명, 19일 1939명, 20일 1601명 등 주간 평균 1200명 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자 제주도 방역당국은 전국 평균보다 약 일주일 가량 선행해 재유행이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국가지정 전담 병상을 총 98병상으로 확대하고 고위험군 중증화와 사망 최소화를 위한 패스트트랙을 가동, 병상 확보 등 추가 방역대책을 추진한다.

앞서 제주도는 전담치료병상과 일반격리병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단계별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도는 도내 확진자가 일일 750명 이상 발생할 경우를 '1단계'(현재), 1500명 이상을 '2단계', 3000명 이상을 '3단계'로 설정했다.

이 단계에 따라 1~2단계의 경우 191병상(국가지정 병상 55·일반격리병상 136)을 운영하고, 3단계에는 최대 453병상(국가지정 병상 262 재지정 및 즉시 가동)을 운영할 계획이다.

도는 확진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격리병상 확충, 재택치료 대응 등 의료대응 체계뿐만 아니라 심리지원 서비스도 강화하고 있다.

고위험군 패스트트랙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의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노인 요양병원과 시설 입소자에서 기저질환자와 정신병원·시설, 장애인시설 입소자를 추가해 관리할 계획이다.

재택치료자인 경우, 증상 발현 시 대면 진료를 통해 조기치료하고 야간·응급상황에서도 24시간 대응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진자 및 가족, 자가격리자의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문제 발생에 대비해 심리적 안정과 일상생활 복귀를 도모하고자 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심리지원 추진체계를 구축했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치매모친과 동반자살 시도 아들 징역 6년

지법 "원망·분노 담은 패륜범죄와 다른 점 참작"

치매에 걸린 80대 모친과 11m 절벽으로 떨어진 40대 아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1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48)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달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 19일 오전 4시쯤 제주시 애월읍 한 해안도로에서 80대 모친과 타고 있던 차량을 11m 절벽 아래로 추락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김씨는 목숨을 건졌지만, 모친은 숨졌다.

앞선 재판에서는 김씨와 김씨의 부인 A씨가 증인석에 앉아 숨겨진 가족사를 털어 놓기도 했다.

진술을 종합하면 김씨는 A씨와 결혼한 뒤부터 18년 동안 어머니를 부양했다. 김씨는 "평소 어머니가 아침밥을 챙겨주시고, 어디 갈 데가 있으면 차로 태워달라고 했다. 일반 가정집과 같이 사이가 좋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지난해부터 발생했다. 건설업을 하고 있는 김씨가 시행사·시공사로부터 수억원의 대금을 받지 못해 빚쟁이 신세가 됐고, 어머니 마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김씨의 아내 A씨는 "어머니 건망증이 점점 심해졌다. 불 위에 올려둔 냄비를 태우는 일이 잦았고, 나중에는 대소변까지 가리지 못했다. 사건 발생 전 내가 남편에게 사는 게 지옥같다고,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했다.

김씨는 사건 전날인 3월 18일 어머니와 동반자살을 결심, 유서를 작성한 뒤 다음날 범행에 나섰다.

진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은 아무런 권한도 갖지 않은 피고인이 타인의 생명을 박탈한 것이다. 더군다나 그 타인은 다름 아닌 피고인의 모친"이라며 "다만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원망이나 분노 등 패륜적 범죄와 다른 점, 평생 친모를 살해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송은범기자

상습 음주운전에 뺑소니
경찰 잠복끝에 40대 검거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뺑소니 사고를 내고 도주했던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귀포경찰서는 최근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주생활을 하던 A씨를 잠복(미행) 끝에 검거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범행 이후에도 2개월간 숙박업소를 전전하며 도피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백금탁기자

높은 파도 치는 날, 제주 즐기기 강풍이 불며 비가 오락가락한 21일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 해안을 찾은 관광객들이 높은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를 바라보며 제주여행을 즐기고 있다. 이상국기자

아동학대 보육교사 등 9명 법정구속

1심 구속 유예… 항소심 "징역 4개월~2년 6개월"

어린이집 원아 학대 사건 피고인 9명 전원이 법정에서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방선옥 부장판사)는 2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1·여)씨 등 보육교사 8명에게 각각 징역 4월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아울러 학대 방지를 위한 주의·감독을 소홀히 하고, 피해 아동 부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 받은 원장 김모(64·여)씨의 항소는 기각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0년 11월 9일부터 지난해 2월 15일까지 제주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 등 원아 10여명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학대는 아이를 발로 차거나 머리를 때리고, 이마를 밀어 넘어지게 하는 등의 방법이었다. 이들 5명의 학대 횟수는 총 300여건이며, 1명이 적게는 37건에서 많게는 92건을 저질렀다.

앞서 지난 2월 1심에서 이들은 모두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다.

방 부장판사는 "보육교사들은 만 1세에서 6세에 불과한 영유아를 상대로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저질렀다. 피해 아동 중에는 장애아동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송은범기자

지법 유사강간 혐의 40대 무속인 첫 공판

"신체접촉 있었지만 퇴마·치료 목적"

피해자 20~50대 수십명

퇴마와 치료를 빙자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된 40대 무속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유사강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속인 A(48)씨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A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사기방조 등)로 B(51·여)씨도 함께 피고인석에 앉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귀포시에서 신당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자신을 찾아 온 여성을 상대로 퇴마 혹은 치료를 빙자해 강제 추행이나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로부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은 수십명이며, 나이대도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하다.

아울러 같은 기간 A씨는 피해자 23명에게 굿을 해야한다고 속인 뒤 2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A씨에게 퇴마의식을 받도록 피해자들을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씨와 B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B씨의 변호인은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무속인 입장에서 퇴마와 치료 목적으로 만진 것 뿐이다. 심지어 퇴마행위 전에 여성들에게 동의서까지 받았다"고 변론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1일 두 번째 공판을 열기로 했다. 송은범기자

만감류 매달기는 다인큘고리!

쉽게 높이조절되는 큘고리 | 큘고리 재사용해 매달은 모습

매달기작업 일손을 줄이고 싶으신 분!
더울 때 작업을 줄이고 싶으신 분!
한번 매달면 몇 년이 속편한,
다인'큘고리'가 있습니다!

큘고리의 장점

1. 실제 매달기 작업의 시간이 확 줄어듬→2년 안에 인건비 절감액으로 자재구입비 회수가능
2. 큘고리 작업세트로 한 번만 던져 설치하면, 3년 이상 철거 없이 매달기 고리로 계속 활용 가능.
3. 큘고리 작업세트는 언제든 미리 설치 가능. 즉, 더워지기 전, 덜 바쁠 때, 인력 쉽게 구할 수 있을 때 언제든 미리 작업해 둘 수 있음.
4. 고정판을 이용하여 높이조절이 쉬움.
5. 수확 후 회수도 간편.

큘고리 작업세트 구성

큘고리+고정판+안파밴드를 셋트로 구입해 사용합니다. **나무 1개에 4-6세트 사용됩니다.**
큘고리에 밴드끈의 한쪽을 묶고, 반대쪽에 고정판을 묶은 후 설치해 매달기 고리로 활용합니다.

DA IN 다인산업(주) 054-652-3725 www.dainfine.com 제주 각 지역 농협에 절찬 판매중

최신 국내육성 감귤 묘목 생산 전문업체
전망 좋은 신품종 감귤 만감류등 각종묘목을 선별하여 최상의 상품을 공급해 드립니다.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윈터프린스 — 차별화된 맛과향, 껍질 벗김이 쉬워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만감류. 연내수학 가능한 만감류 과일시장의 새로운강자!
탐나는봉 — 미국에도 2019년 식물특허 등록완료! 색상이 진하고 당함량이 높고 식감이 우수. 기존 한라봉(부지화)보다 우수성을 인정받은 우리 품종.
사라향 — 껍질 표면이 매끈하면서 두께가 얇으며 기존 천혜향보다 과육 밀도가 높으며, 2월 중하순 성숙하며 과즙이 풍부하면서 고유의 향기가 있음.
하례조생 — 조숙 온주밀감으로 기존 궁천조생보다 같은 시기 당도는 높고 산함량은 낮아 11월 고품질 감귤을 생산 출하할 수 있는 품종,
제라몬 — 함량 및 높아 향기가 진한 레몬 품종 내한성이상대적으로 강한 걸로 평가되는 품종.
미니향 — 소과형(30g내외) 감귤로 당도가 매우 높으며,기존 품종과는 차별화된 고품질 품종.

과수농가 보급품종(1.3년생)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유라조생 궁천, 흥진, 카라향, 산화홍(붉은색 감귤)

가정원예(조경수)(2~7년생)
하귤, 팔삭, 세미놀, 금귤, 당유자, 아마나스 미니몬, 국내산 탱자묘목 판매(신고번호 03-0102-2000-3)

❖ 제주한라농원 감귤류묘목 전시판매장 개장!!
❖ 1년생 규격묘, 2~5년생 일반묘, 포트묘, 화분묘 분양

사전예약 주문생산 탐빛1호, 선킹, 설봉미, 미니몬, 무봉

제주한라농원은 (사)한국과수종묘협회 우수업체이며, 우수신품종을 농촌진흥청 국유품종보호(통상실시권)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판매하는 종묘전문업체입니다.

제주한라농원 | 010-4736-2479 / 010-6500-2329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991번길1(수산리735)